

# 예능의 다큐화... '웃음과 재미'에 느낌표 플러스

MBC 파일럿예능 '이상한...머느리' 교양본부서 일부 제작...다큐 가미 고립다큐 '숲 속의 작은 집'도 눈길

방송가에서 예능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의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이 '웃음과 재미'라는 고유의 영역을 넘어 다큐멘터리와의 크로스오버가 이뤄지면서 '보고 느끼는 재미'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방송중인 케이블채널 tvN '숲 속의 작은 집'은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는 설명이 뒤따르는 프로그램이다. 소지섭과 박신혜가 제주도 산속에 마련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프로그램은 인위적인 설정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접근법이 색다르다. 나무, 물, 바람, 공기까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위적인 설정을 통한 웃음기를 견여내고 오로지 출연자들의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재미를 추구한다. 특히 연출자가 나영석 PD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나 PD는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윤식당' '신서유기' 등으로 극적인 재미를



다큐멘터리와 컬래버레이션을 이룬 예능프로그램이 잇따라 방송돼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재미와 힐링을 안기고 있다. 사진은 MBC 교양본부가 내놓은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진행자들. 사진제공 | MBC

연출해왔기에 그의 변신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예능다큐'라는 부제를 붙여 2017년 연말 방송된 tvN '행복한민'은 행복한 근로와 행복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놓고, 출연자들이 덴마크를 방문해 우리나라

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며 재미와 웃음보다는 정보제공에 치중한 바 있다.

MBC에서는 교양본부가 일부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다큐멘터리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지난달 3월29일과 이달 4일, 2부작으로 방송한 '할머니네 풍강아지'는 관찰예

능의 포맷을 띠고 있지만, 조순관계의 세대 차이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그려 호평 받았다. 출연자 중 연기자 김영옥은 "예능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교양본부가 제작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차별화에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12일부터 3부작으로 방송되는 파일럿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도 MBC 교양본부가 내놓은 예능프로그램이다.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는 개그맨 김재욱의 아내인 박세미 등 머느리들이 고부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담아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도 제기되지만, 설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도를 높인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

특히 연출자인 정성후 PD는 'MBC 스페셜' 제작에 10년 간 참여하고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의 인기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인물. 그동안 다큐멘터리로 쌓은 실력을 예능프로그램에 적용해 시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백셀미 기자 bsm@donga.com**

## 이정연의 꼬리물기

### '일주일째 음원차트 1위' 날로 재발방지 위해 진상조사 필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날로의 역주행'을 보고 있다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한 두명기수가 뚜렷한 계기도 없이 음원발표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의 실시간차트 1위에 오른 일을 두고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날로 소속사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리메즈) 측은 "어떤 편법도 쓰지 않았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SNS 마케팅의 힘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가온차트 수석연구원은 "역주행을 할 만한 직접적인 사건과 계기도 없었다"고 한다. 멜론 측은 "불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마케팅 목적이 음원차트 1위가 아니었기에 우리도 당혹스럽다"는 리메즈 측 입장에서 역주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나 SNS 마케팅은 대부분의 연예기획사가 하는 일이지만 리메즈처럼 극적인 효과를 본 사례는 찾기 힘들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리메즈 측 주장처럼 발라드 곡을 많이 듣는 밤 시간대에 관련 동영상에 SNS에 올렸다고, 음원차트 순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지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저히 그 원인을 찾기 못해 누리꾼들은 "문체부에서 음원 사재기와 순위 변동 사건을 해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날로의 역주행'을 예의주시하던 가요계도 심각성을 깊이 느끼고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음반기획사 매니저들이 주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날로 역주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위에 오르기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이 사용됐다고 판단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잠과 혼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날로의 1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음반기획사는 리메즈 측의 마케팅 노하우에 더욱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annjoy@donga.com**

## 다큐영화 흥행 열풍 그 진원지는 '대통령'

'바보농부' '4대강' 등도 개봉 체비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한 번 열풍을 만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의혹을 제기하는 '그날, 바다'는 22일 누적관객 35만 명을 넘어섰다 상업영화와 비교해 주목도가 될 수 밖에 없고, 스크린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그날, 바다'는 이날 역대 극장 개봉 다큐영화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흥행에 성공한 다큐영화도 여러 편. 185만 명을 동원한 '노무현입니다'를 비롯해 26만 명을 모은 '공범자들', 12만 관객에 성공한 '저수지 게임' 역시 인기를 모았다.

이들 작품은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한 인간에 주목한 휴먼 다큐 성격이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통령'이다. 영화계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흥행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참사를 향한 의혹 제기라는 주제로 인해 당시 박근혜 정권으로 비판의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공범자들' 역시 MBC 등 방송장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을 겨냥한다.

지난해 5월 개봉한 '노무현입니다'는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3위다. 2016년 말 개봉한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역시 19만 관객을 동원했다. 비슷한 시기 벌어진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은 이들 작품의 흥행을 이끈 원인이자. 그만큼 현실 문제와 다큐 영화의 연관성이 높고,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계속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삶을 그린 '바보 농부'가 개봉을 준비중이고, 구속돼 재판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주력한 4대강 사업을 파헤치는 다큐영화도 나온다. **이해리 기자**



영화 '그날, 바다'



영화 '노무현입니다'



'행반' 공효진

'걸캅스' 라미란

'협상' 손예진

## 뻔한 형사는 가라... '女캡스'가 뜬다

공효진 '행반'서 뺑소니 전담 형사 라미란, 여성 투톱 형사물 '걸캅스' '협상' 손예진, 경찰청 소속 협상가

잘 나가는 여배우들이 범죄액션 장르에서 열혈 형사로 활약하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익숙하게 본 거친 형사의 모습과는 다른 매력으로 관객에 다가가는 여형사들이다.

공효진과 라미란은 형사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역할 소화를 넘어 범죄액션극의 소재 확장으로 이어진다.

공효진은 현재 영화 '행반'(감독 한준희·제작 후드엔유픽처스) 촬영에 한창이다. 1999년 데뷔 이래 형사역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 그만큼 새로운 변신을 예고한다. 영화는 슈퍼가와

레이싱, 뺑소니 사건이 한데 뒤섞인 자동차 추격 액션이다. 광역수사대에서 뺑소니 전담반으로 좌천된 형사가 공효진의 역할. 뺑소니 전담반 에이스(류준열)와 악당(조정석)을 잡는 이야기다. 공효진은 "시원한 액션과 뜨거운 공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라미란은 영화 '걸캅스'(감독 정다원·제작 필름모멘트) 주연을 맡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투톱 형사물'이란 사실부터 시선을 끈다. 라미란은 인정받는 형사였지만 결혼 뒤 어쩔 수 없는 '생활의 문제' 탓에 민원실로 밀려난 인물. 민원실로 쫓겨난 신입 형사와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한다.

여형사가 이끄는 영화는 소재확대 효과를 이끌어낸다. '걸캅스'는 여형사들이 해결하는 여성 범죄 사건을 그려내면서 더욱 섬세한 구성으로 관객의 공감도를 높인다. 동시에 '일하는 여

성'을 향한 공감대 형성도 놓치지 않는다. '걸캅스'에서 라미란이 결혼 이후 직장에서 밀려난 상황을 그려내는 것처럼 '행반'에도 비슷한 입장의 배태랑 여형사가 등장한다. 배우 전해진 이 연기하는 형사는 임신, 출산 등 상황에도 프로의 면모를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 영화가 개봉 이후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누비며 흥행 성과를 내는 손예진의 선택도 경찰이다.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둔 영화 '협상'(감독 이종석·제작 JK필름)에서 그는 경찰청 소속 협상가 역할을 맡았다.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면서 사건을 해결한다. 인질범 역은 배우 현빈이 맡은 만큼 두 배우가 벌이는 팽팽한 연기 대결이 일찍부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또 의료 사고...한예슬 수술중 화상 그후

해당 의료진 사과...보상 논의 중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예슬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 보상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 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어떤 보상도 위료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글과 함께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려 충격을 줬다. 지방종은 몸의 지



한예슬

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22일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한예슬은 4월2일 서울 강남차병원에서 지방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흔적이 속옷에 가려지도록 브래지어가 지나는 부위를 절개했고, 피부 박리 과정에서 인두가 피부를 뚫는 과실을 냈다. 이

로 인해 피부 조직이 손상됐다. 손상 부위는 한예슬이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동그란 부분으로,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근이다.

차병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술 결과를 밝히면서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원에 따르면 피부수술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으나 이후 치료과정에서 일부 피부가 붙지 않아 화상피부 전문 재생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한예슬 집도의는 21일 홍해걸 의학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술과정을 공개하고 사과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해시태그 킷



효용선 "영원하자!"

'영원한 소녀시대'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윤아, 효연, 써니가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아는 이들의 이름 한 글자씩 따 '효용선'이라 칭하며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이 환히 웃는 모습에 팬들은 "예쁘다"고 말한다.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수영은, 나란히 단발머리를 한 셋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단발이들"이라고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